

대형계열기획보도-백성이야기 (161)

최봉화 : 연변 커피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사과배커피와 인삼커피 출시, 연변 커피문화의 미래를 열다

관광업 '왕흥도시' 연길은 최근년간 매 100 걸음마다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커피 맛에 모두 자기만의 특색이 다른 커피숍들로 인해 '카페가 즐비한 도시', '현역 커피의 왕'으로 불리고 있다. 현역 도시중 만명당 커피전문점 보유량이 상해보다 4배 가까이 많아 전국 제 1로 집계되었다.

3월초, 2025 세계커피추출대회 중국경기구 선발경기 연변분구 경기가 연길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온 수십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중국경기구 선발경기 총결승의 참가 자격을 쟁탈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다. 경기는 바로 최봉화가 회장으로 있는 연변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최근, 기자 일행은 최봉화를 만나 커피와 함께한 13년의 창업이야기, 연변 특산물을 활용한 사과배커피와 인삼커피 등 커피 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과정, 그리고 연변 커피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그의 소견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학문에서 실천으로 : 커피 인생의 첫걸음마 떼다

연길 태생 (1984년생)인 최봉화는 연변대학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이듬해인 2012년에 본격적으로 커피산업에 뛰어들었다.

학문적 배경은 그녀가 커피산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연길의 커피 시장은 다방 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다. 믹스커피가 대세인 환경에서 그녀는 전문커피숍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다보았다.

젊은층이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그는 진달래광장 부근에 첫 매장을 열고 커피 창업의 첫걸음마를 떼었다.

'커피 한잔이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고급 원두와 편안한 공간을 강조하는 현대적 전문커피숍 문화를 도입했다. "당시 전문커피숍은 희귀했고 젊은층을 위한 문화 공간은 턱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창업 초기 그의 현대적 커피숍은 손님들의 의아해하는 반응도 겪었다. "술을 안 팔고 커피만 팔면 돈을 어떻게 버오?"라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커피의 가치를 설명했던 시절도, 손님들에게 '다방'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이제 돌이켜보면 재미있고 즐거웠던 경험이라고 한다. 커피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다짜고 짜 맥주나 안주를 요구하는 손님도 많았지만 최봉화는 커피 품질과 써비스에 집중하고 커피전문점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꾸준히 달려왔다.

커피 열정의 승화 : 연변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설립

최근 10여년 사이에 연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현대적 커피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커피숍은 지역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연변에는 깊은 커피문화가 있지만 체계적인 기록과 지원이 부족하지요. 커피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발전시키고 싶었고 뜻이 같은 청년들에게 커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2018년 최봉화는 연변 커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커피는 문화이며 지역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변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를 설립하여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이끌기에 주력했다.

협회는 주민정국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성 단체로 커피업계의 자원 통합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규모는 초기의 50여명 회원에서 현재 200여명으로 성장했으며 커피숍 운영자,



연변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 최봉화

바리스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커피 기술 교육, 국내외 행사 주최, 지역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연변 커피의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기술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인재 양성은 산업 발전의 핵심이지요."라고 최봉화는 말한다.

최봉화는 지역 청년들이 커피를 통해 기술을 배우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펍프직업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수백명의 바리스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커피 운영과 기술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커피 제조 기술과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오며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은 연변 뿐만 아니라 외지 청년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수강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커피산업이 청년들에게 유망한 진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리스타가 손님들로부터 복무원 취급을 받으며 하대를 받던 시절은 옛그재 애기고 최근에는 대학졸업생들의 커피 창업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바리스타 교육과정은 단순한 기술



커피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최봉화

전수에 그치지 않고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 조달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데 졸업생 중 일부는 해외에서도 창업 성공 사례를 쌓고 있다. 오늘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커피교육'이 단순 기술 전달을 넘어 문화 혁신의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성공의 리면에는 지역사회의 대한 책임감이 자리한다. 협회는 연길시총공회와 협력해 여러개의 '이웃커피'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구역에 직접 커피숍을 개설한 것이다. "상업적 이익보다는 지역 사회와의 융합을 우선시한다."는 최봉화의 패부지언이다.

연변 특색 커피 탄생 :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

협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연변 특산물을 활용한 혁신적 커피 제품 개발이다. 연변 특색 커피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상징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최봉화는 '사과배커피'와 '인삼커피'를 이야기했다.

"맛보세요, 사과배커피입니다." 최봉화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 한모금 마셔보았다.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과배의 정량함과 커피의 깊은 풍미가 어우러진 향이 혀끝에 감돌며 입안을 즐겁게 해준다.

최봉화에 따르면 연변 특산물인 사과배는 당도가 높은 데 비해 향이 약해 커피와의 조합이 쉽지 않았다. 2015년부터 사과배커피 개발에 착수해 3년 만에 드디어 사과배 원액을 커피에 혼합한 독자적인 레시피를 완성했다. 이 제품은 틱톡, 콰이서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내외 광범한 젊은 소비층의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변의 대표적인 특산품과 커피 융합의 제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최봉화는 사과배커피에 이어 인삼커피 개발에도 성공했다. 인삼 원액을 커피와 조합해 건강 기능성을 강조한 이 제품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미만의 양삼만 사용했다. 인삼커피 역시 건강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 시도로서 약

교육, 기술, 문화가 삼박자를 이룬 최봉화의 창업스토리와 더불어 꿈을 이루기 위한 최봉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연변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커피의 도시'로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최봉화. "2025년 세계커피사프루임대회, 세계바리스타대회를 주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바리스타대회를 동북지역 최대의 커피축제로 자리매김시키며 연변 커피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로씨야,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커피 원두 유통부터 문화교류까지 폭넓게 협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협회 사업의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최봉화는 연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지역 커피산업의 역사와 정책, 미래와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모색하며 최봉화는 학자, 기업가, 교육자로서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산업 토대를 다져오면서 학문적 성과를 실무에 적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연변주정협 위원으로 당선된 후 2회째 리임하면서 연변 커피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좋은 제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커피는 연변의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연변 커피가 세계인 모두의 사랑을 받을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최봉화, 커피산업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식지 않는 그의 열정과 함께 연변 커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삼커피를 우선 먼저 티드려 '연변의 아이'로 자리매김되도록 해야죠."라고 밝혔다.

미래 향한 비전 : 커피로 연변을 세계에 알리다



동북범표범공원 순찰대원 반달곰에 피습... 신속한 구조로 생명 지장 없어

최근 동북범표범공원 왕청관리보호소심 랑가보호소에서 2명의 순찰대원이 순찰 도중에 갑자기 나타난 반달곰(흑곰)의 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왕청관리보호소심,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교통경찰총대) 고속도로 연변분국,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은 신속하게 련동하여 긴급구조 녹색 통로를 열고 부상을 입은 순찰대원을 긴급히 병원에 이송했다. 제때에 치료를 받게 된 2명의 대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중 한명은 이미 퇴원했고 다른 한명은 추가치료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동북범표범공원 왕청관리보호소심 랑가보호소 제 2순찰보호대의 6명 대원이 27림반(林班) 근처에서 분산되어 정기 순찰을 펼치고 있을 때 앞에서 걷던 대원 반희충이 나무 뒤로부터 갑자기 덮쳐든 반달곰의 습격을 받았다. 멀리 않은 곳에 있던 대원 동수빈이 반희충의 절규를 듣고 인차 달려와 반달곰에게 습격당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뭉둥이를 휘두르며 쫓아냈다. 그러자 반달곰은 동수빈에게 달려들었다.

분산되어 순찰하던 다른 4명 대원이 이 소리 듣고 달려왔을 때 반달곰은 이미 2명의 대원에게 쫓겨났지만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였다. 반희충은 두피가 벗겨지고 왼쪽 눈에 상처를 입었으며 두 손에 모두 관통 상처가 생기고 등과 팔꿈치에도 깊이가 다른 상처가 생겼다. 동수빈도 뒤통수와 귀에 상처를 입어 선혈이 량자했다. 4명의 대원은 두 사람의 상처를 동여 지혈시킨 한편 랑가보호소에 보고하여 구조대원과

구조차량을 요청했다. 보고를 받은 왕청관리보호소심 책임자는 신속하게 '동북범표범 돌발사건 응급대책'을 가동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미리 왕청현병원에서 구조 협조 준비사업을 펼치게 한 동시에 상황을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에 보고했다. 왕청현병원에 이송된 반희충과 동수빈은 상처가 심각하여 연변병원으로 옮겨졌다.

연변대학부속병원 급진외과 부주임 주영준은 "당시 두 환자는 교상 상처가 심각했으며 특히 반희충은 왼쪽 눈에 심한 상처를 입고 눈섭뼈가 골절되었으며 루관(泪管)이 손상되어 당일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동수빈은 머리, 귀와 어깨에 상처를 입었는데 처치를 마친 후 이틀 간의 관찰 기간을 거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영준은 "제때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반희충은 안구복위수술과 안면봉합수술을 받고 동수빈은 머리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은 야생동물 보호가 꾸준히 강화되면서 공원의 범, 표범, 곰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공원의 중심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광범한 대중들에게 주의주면서 반드시 공원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당시 보호소에 보고해 등록하고 안전 보호 조치를 잘 취하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때에 련계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귀띔했다.

/연변조간

아빠트단지 화재 막은 6명의 '꼬마소방수호자' 표창



최근 북경시 순이구소방구조대는 동풍소학교에서 특별한 시상식을 열고 화재 진압에 기여한 6명의 '꼬마소방수호자'를 표창했다. 이들은 지난달 발생한 아빠트단지내 화재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큰 재난을 방지한 주인공들이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당시의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있었다.

"당시 당황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왕자명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소 학교에서 화재안전교육을 받아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불이 나면 인출 신고하고 주위 어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소화기는 불을 끌 수 있다고 배웠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들고 갔어요."라고 설명했다.

올해 6학년인 왕자명은 생생하게 당시를 회상했다. "다행히 제가 전화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다른 5명의 소화생들도 지켜만 보지 않았다. 풍혁함과 왕정웅은 현장에서 화재 상황을 관찰했고 침착함, 오오신, 축일현 3명은 아빠트단지 관리실로 달려가 관리인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화재 소식을 접한 관리인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갔다. 3명의 학생들도 각각 소화기를 들고 뒤따라갔다. 관리인원 마지막은 "당시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가진 소화기는 금방 다 써버렸고 불길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더 가져온 3개의 소화기가 결정적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당황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왕자명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소 학교에서 화재안전교육을 받아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불이 나면 인출 신고하고 주위 어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소화기는 불을 끌 수 있다고 배웠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들고 갔어요."라고 설명했다.

올해 6학년인 왕자명은 생생하게 당시를 회상했다. "다행히 제가 전화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다른 5명의 소화생들도 지켜만 보지 않았다. 풍혁함과 왕정웅은 현장에서 화재 상황을 관찰했고 침착함, 오오신, 축일현 3명은 아빠트단지 관리실로 달려가 관리인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화재 소식을 접한 관리인원들은

/인민넷 - 조문판